

수석합격기
(제54회 행시 재경직렬 수석합격)

본인에게 맞는 공부방법이 최선의 공부방법



서민정

- 1986년 9월 생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4년 재학
- 제54회 행시 재경직렬 수석합격

I. 들어가며

그동안 제 수험생활을 돌이켜보니 작년 11월 한 달 동안 불안감에 휩싸여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내년에 시험에 응시했을 때 1차에 또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였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적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최종합격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던 저에게 합격수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는 동안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수험공부의 방향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마음이 나태해질 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지 않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쓰는 글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I. 수험생활

1. 2007년 12월~2008년 11월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전공이 경제학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별다른 고민 없이 재경직을 염두에 두었고 시험에 대하여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2학기를 마치고 곧바로 신입동에 와서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급한 대로

학원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였지만 시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다보니 PSAT을 공부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PSAT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지 않았으므로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2008년에는 1차 시험의 합격·불합격에 관계없이 2차시험과목의 기초를 다지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시험 불합격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내년에 다시 PSAT 공부를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3월부터 예비순환과 1순환 그리고 2순환 학원 강의를 차례대로 수강하였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제가 아는 것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기간이었습니다.

2. 2008년 12월~2009년 6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과목 중에 자료해석이 제일 어려웠기 때문에 신현 선생님의 자료해석 강의를 들었고 언어논리와 상황판단은 따로 강의를 듣지 않고 모의고사만 보는 반을 신청하여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자료해석 점수가 많이 상승하여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올해는 1차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이를 검토하는 한편,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출문제를 구해서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하는데 기출문제를 모의고사처럼 풀기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시문이나 보기 지문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지 기출문제를 풀고 채점만 했던 것은 제가 기출문제의 답을 외우는 것에 불과했을 뿐 기출문제를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에 응시했던 PSAT에서 자료해석 점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논리와 상황판단 점수의 하락으로 인해 또다시 1차 시험에 불합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제 PSAT 채점결과를 보고 심각하게 직렬변경을 고려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참 고민하고 제가 왜 공직에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하던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률저널의 예상 컷에서 한참 떨어지는 점수였지만 2차 시험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학 3순환 강의를 등록하여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행정학이 시작했을 즈음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주변 친구들이 합격하는 것을 보고 공부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 들고 있던 학원 강의를 환불하고 싶었지만

제 자신을 다독이며 국제경제학까지 3순환 강의를 모두 마치고 신입동을 나왔습니다.

3. 2009년 7월~2009년 11월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해야만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시험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름방학이 되면서 학교에서 하는 1차 스터디를 구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저는 학교에 복학하여 조세론, 행정법각론, 행정부제법 등을 수강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각론의 경우에는 학원수업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인데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 행정법, 재정학, 국제경제학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듣거나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편이었는데 유독 행정학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도 들은 적이 없었고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교과과서를 읽는 것에 그치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부의 양 측면에서 다른 과목에 비하여 행정학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공부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터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각종 과제 준비로 인하여 생각만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시기를 보냈습니다.

4. 2009년 12월~2010년 2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저는 다시 신입동에 방을 구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2010년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까지 PSAT준비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체력과 집중력이 허락하는 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하였고, 모의고사만 보는 학원 강의를 신청하여 최대한 실전처럼 연습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느슨해져서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라 친구들과 학교 선배와 함께 저녁마다 모의고사를 구해서 함께 푸는 것으로 제 자신에게 구속을 가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틀린 문제를 검토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1차 합격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던 것인지 시험이 끝나고 집에 와서 채점해보니 평균이 작년에 비해 무려 10점 이상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법률저널 예상 컷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므로 마킹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1차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앞으로 2차 시험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5. 2010년 3월~2010년 11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는 기쁨을 누리며 본격적인 2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합격수기에서 읽은 '3순환 이후의 3개월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나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1차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게 기회가 주어진 이상 최선을 다해서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올해 2차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올해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의 제 수험 생활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원 강의를 수강하면서 친구들과 스터디를 구성하여 꾸준히 답안 작성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2차 시험을 치러야 할 상황이 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작년에 3순환 강의를 들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일단 공부단계마다 제가 공부해야 할 교과서나 요약집을 선택하여 매일 일정분량의 진도를 소화하기 위해 2주일마다 계획을 세웠고 그에 맞춰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반복적으로 내용을 암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III. 공부방법

1. 도입

백 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백 가지의 공부방법이 있다고 하듯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본인만의 공부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하여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공부한 방법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본인의 방법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PSAT

(1) PSAT: 공부하면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시험

제가 PSAT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PSAT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시험이라는 것과 시험을 보는 사람의 선천적인 능력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시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PSAT를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점수를 얻는 분들이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PSAT도 시험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부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거나 시험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PSAT 공부방법

PSAT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교재는 기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반복하면서 PSA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하다보면 정답을 외워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를 처음 풀 때만 실제 시험시간에 맞추어서 풀고 그 이후에는 제시문과 보기를 검토하고 오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하였습니다.

기출문제 뿐 아니라 학원 모의고사 받을 수강하면서 매일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해보고 연습하고자 했던 것이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컨디션 조절 및 시간관리

하루에 두 시간씩 보는 2차 시험과는 달리 1차 시험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본인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공부와 함께 컨디션 조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시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는 1월부터 모든 생활을 시험시간에 맞추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시험시간과 동일하게 맞추어서 밥을 먹었고 낮잠도 가끔적이면 자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했고 될 수 있으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연습한 것이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2차공부

(1) 경제학

경제학의 경우에는 황중휴 선생님과 김진욱 선생님 강의의 번갈아가며 수강하였습니다. 두 분이 서로 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학을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시경제학의 경우에는 이영환 교수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로 공부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매 단원마다 연습문제가

있어서 내용을 공부하고 이를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시경제학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산문제는 서술형 문제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접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거시경제학의 경우에는 공부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많이 읽어 그래프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운찬-김영식 교수님의 교과서와 김경수-박대근 교수님의 교과서를 함께 보았고 매 단원마다 있는 연습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경제학 서브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김진욱 선생님 3순환 자료를 하나로 모아서 추가할 내용은 포스트잇에 붙여 정리하였습니다.

경제학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수식, 그래프 그리고 문제의 시사점에 대한 서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답안을 작성할 때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문제를 모두 풀이한 이후에 이것이 왜 문제로 출제되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를 소결부분에 쓰려고 노력하신다면 답안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김정일 선생님 강의를 예비순환부터 2순환까지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내용을 공책에 정리하면서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선생님이 주신 자료와 교재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올해 3순환과 4순환 때에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행정법각론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선균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교과서는 류지태-박종수 교수님의 교과서와 박근성 교수님의 교과서로 공부하였고 정선균 선생님의 행정법엑기스를 서브로 삼았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사례풀이에 관한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행정법엑기스에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법은 답안을 작성하는 형식이 다른 과목에 비해 정형화되어 있어 일단 답안작성요령을 터득하고 나면 그 틀에 맞추어 답안을 쓰는 것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법의 경우에는 사례를 보고 논점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받은 사례집을 계속 반복하여 논점을 찾아 논점의 정리부터 사안의 해결까지 목차만 잡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의 경우 정경호 선생님, 이명훈 선생님, 이동호 선생님, 박경효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올해는 3순환 때 정경호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였고 4순환에는 박경효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교과서는 유민봉 교수님의 한국행정학과 새행정학 교과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강제명 선생님의 행정학과 정경호 선생님의 핵심행정학을 정리할 교재로 삼아 공부하였습니다.

행정학은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사람들마다 작성하는 답안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형식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행정학 문제는 총론의 내용과 각론의 내용을 융합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 공부하실 때 총론과 각론을 따로 공부하기 보다는 각론을 공부할 때 총론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유기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행정학 답안을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행정학을 잘 하는 친구들에게 제 답안지를 보여주면서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4) 재정학

재정학도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황종휴 선생님과 김진욱 선생님의 강의를 빈

갈아가며 수강하였습니다. 재정학은 이준구 교수님의 책과 이만우 교수님의 책으로 공부하였고 학원에서 주는 자료와 제가 수업시간에 필기한 공책을 부교재로 삼아 공부하였습니다. 재정학도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연습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하였고 이준구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실증연구내용이나 신문에 나오는 내용 등을 따로 정리하여 교과서 맨 앞에 붙여놓고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5)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도 황종휴 선생님과 김진욱 선생님의 강의를 번갈아가며 들었습니다. 김인준 교수님의 책과 남종현 교수님의 책으로 공부하였고 학원에서 주는 자료와 제가 필기한 공책을 부교재로 삼았습니다. 김진욱 선생님의 모의고사의 zip교재로 시험 직전까지 답안작성연습을 하였습니다.

IV. 기타 고려사항

1. 공부장소 및 공부시간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도서관, 독서실, 방 등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공부할 때 책을 이것저것 퍼 놓고 산만하게 공부하는 편이라 소음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독서실이나 도서관 보다는 방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신림동에 방을 구해 공부하였습니다. 방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독서실과는 달리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제지해줄 사람들이 없으며 침대도 책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나태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순환이 시작하면서부터 제 방에 있던 컴퓨터를 치우고 방에는 책만 뒤셔 단순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부장소마다 나름대로의 장,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부방법을 잘 생각해보고 이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부시간의 경우에는 저는 따로 시간을 재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만한 편이라 스태워치를 책상에 놓고 시간을 재면 책은 안 보고 계속 시간만 확인하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보다는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 오전에는 8시부터 12시 반까지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략 두 시에서 여섯 시-에는 수업내용을 복습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에는 스터디에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저는 보통 11시 반이나 12시까지 공부하였는데 걸보기와는 달리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공부하는 도중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가끔씩 낮잠을 두 시간 넘게 자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때마다 헤이해진 제 자신을 자책했지만 많이 잔만큼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낮잠을 많이 자는 날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2. 답안 작성 연습

2차 시험은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답안으로만 평가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기간에는 꾸준히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답안에 현출해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전에서는 2시간 동안에 10장의 답안지를 작성해야 하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배분하는 요령을 습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초안을 15분 이내에 잡고 나서 답안을 작성하는 식으로 시간을 배분하였고 경제학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 25분까지 초안을 잡는 시간을 늘려서 연습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게 특화된 시간배분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글씨 쓰는 속도를 고려하여 본인만의 시간배분 방법을 정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답안 작성 연습을 계속 하다보면 본인만의 요령이 생겨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V. 나가며

2차 시험을 공부하면서 과연 내가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지금도 제가 공부한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공부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끝까지 자신을 믿고 그 방법에 따라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합격이라는 목표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